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리의 얼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홍 승 범[†]

나 진 경¹⁾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관상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실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해외에서는 얼굴이 주는 정보의 다양성과 유용성 그리고 얼굴이 우리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된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개관하고, 후속 연구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사람들이 얼굴로부터 특성을 유추하는 양상 그리고 얼굴을 통한 추론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판단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얼굴을 통한 판단의 정확성에 대해 검증한 연구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추가로 얼굴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과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의 문화 차를 살펴본 후, 얼굴을 통한 추론 및 판단과 관련하여 추후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얼굴 지각, 인상 형성, 문화, 사회 인지

[†] 교신저자: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학생,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5, E-mail: hongsb14@sogang.ac.kr

1)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E-mail: jinkyung@sogang.ac.kr

2013년 9월에 개봉한 영화 “관상”은 큰 흥행을 거두었다. 무려 9,135,806명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봤다. 영화의 흥행 요인으로 유명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탄탄한 스토리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관상’에 대해 다른 영화라는 점 또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을 것이다. Lichtenberg(1968)는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형상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의 얼굴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얼굴로부터 사람의 성격을 읽어낸다는 관상학(physiognomy)은 하나의 학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인기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Aristotle, 1936; Hassin & Trope, 2000; Lavater, 1880; Todorov, Olivola, Dotsch, & Mende-Siedlecki, 2015). 일례로, 스위스 관상학자 Lavater(1775)가 얼굴의 외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성격 특성과 기질을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한 관상학 저서는 1772년에 처음 출판된 이후로 1940년까지 무려 150편 이상 재출판 되었다. 물론 얼굴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 그 사람의 실제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관상학의 주장들은 오늘날 일부 사람들에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의 관상에 대한 믿음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관상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5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대략 75% 정도의 응답자들이 얼굴로부터 타인의 일부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Hassin & Trope, 2000).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에 매우 큰 관심을 가

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인다. 심지어 시각적 경험이 거의 없는 갓 태어난 신생아들조차도 얼굴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Goren, Sarty, & Wu, 1975; Johnson, Dziurawiec, Ellis, & Morton, 1991).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에 주목하는 이유는 얼굴이 그 사람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의 얼굴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우리는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성별, 나이, 정서 상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Hassin & Trope, 2000; Little & Perrett, 2007). 그렇다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적 속성들도 얼굴을 통해 알 수 있을까?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얼굴을 통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성향과 행동 양상까지도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다(Little & Perrett, 2007; Willis & Todorov, 2006). 이와 같이, 아주 오래 전부터 다수의 사람들은 얼굴이 개인의 내면과 영혼을 잘 반영하며,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내적 속성과 성향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Hassin & Trope, 2000; Suzuki, Tsukamoto, & Takahashi, 2017). 더욱이, 관상학자 Lavater(1775)는 우리가 관상학을 얼마나 믿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얼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얼굴을 바탕으로 한 추론과 판단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ntonakis & Delgas 2009; Blair, Judd, & Chapleau, 2004; Eberhardt, Davies, Purdie-Vaughns, & Johnson, 2006; Little, Burriss, Jones, & Roberts, 2007;

Olivola, Eubanks, & Lovelace, 2014; Rezlescu, Duchaine, Olivola, & Chater, 2012; Todorov, Mandisodza, Goren, & Hall, 2005; Zebrowitz & McDonald, 1991).

그렇다면, 과연 개인의 얼굴은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을까?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얼굴이 ‘마음의 창(the face is a window to the soul)’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었으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얼굴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고자 하였다(Todorov et al., 2015). 가령, Lavater(1775)는 인간의 본성이 얼굴에 드러나므로 범죄자를 구별할 때 그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단서를 사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 얼굴이 그 사람의 실제 특성과 성향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관상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며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내리는 판단과 의사결정은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얼굴이 주는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고대 시기부터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아왔다. 다수의 학자들은 관상의 정확성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경험적 연구들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이 일부 정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기존 연구 문헌들을 개관하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후속 연구를 도모하는 데 있다. 먼저 사람들이 얼굴로부터 내적 속성을 유추하는 양상에 대해 알아본 뒤, 얼굴에서 유추한 특성이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정확성을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얼굴 정보의 유용성 및 가치와 관련

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얼굴 지각과 인상 형성에 관한 문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고 그 함의를 논하였다.

얼굴로부터 내적 특성 유추하기

낯선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곳은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며(Porter, England, Juodis, ten Brinke, & Wilson, 2008; Zebrowitz, 1999), 우리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얼굴을 바탕으로 타인의 성격 특성을 추론하려는 경향이 있다(Hassin & Trope, 2000; Willis & Todorov, 2006). 그렇다면, 타인의 얼굴에 근거한 첫인상은 얼마나 빨리 형성될까?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추론하는 과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Todorov, Pakrashi, & Oosterhof, 2009). 예를 들어, Willis와 Todorov(2006)는 얼굴을 통한 특성 추론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들은 연구참가자들에게 낯선 66명의 얼굴 사진을 연이어 보여준 뒤, 이에 대한 노출 시간(100ms vs. 500ms vs. 1000ms)을 달리 하면서 각 얼굴로부터 여러 특성들(매력도, 호감도, 신뢰성, 유능성, 공격성)을 유추하도록 지시하였다. 만약 낯선 사람의 얼굴을 보고 0.1초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내린 인상 평가가 아무런 시간 제약이 없는 조건에서 내린 인상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얼굴에 근거한 특성 추론은 별도의 인지적 노력이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직관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험 결과, 특성 추론에 대한 세부 양상은 노출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100ms 이내에 내린 판단은 시간 제약 없이 내린 판단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r_s = .52 \sim .73$). 이런 높은 상관관계는 얼굴로부터 내재적 속성을 추론하는 데에 있어 100ms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후속 연구에 의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낯선 이의 얼굴을 보고 상대방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유추하는데 50ms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Todorov et al., 2009). 이와 같은 결과들은 인상 평가가 우리의 의식 수준 밖에서 자동적이고 직관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의 첫인상이 놀랄만한 속도로 매우 순식간에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Willis & Todorov, 2006).

그렇다면 얼굴을 바탕으로 타인의 특성을 유추하는 능력과 경향성은 얼마나 빨리 발달할까? 낯선 사람의 얼굴 정보만을 사용하여 그 사람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다양한 학습과 사회적 경험이 축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낯선 얼굴에 대한 성인들의 평가와 어린 아동들의 평가가 서로 다를 것이며, 성인들과 달리 아동들이 내린 평가의 합치도는 매우 낮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어린 아동들도 성인들과 유사한 양상으로 얼굴을 보고 특성을 유추해낸다면, 다시 말해 아동들의 판단과 성인들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고 아동들도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합치도를 보인다면, 얼굴에 근거한 특성 추론 경향성은 사회화와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매우 이른 시기에 발현되는 사회인지 능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연구들은 후자의 입장과 가능성을 더 지지

하고 있다(Antonakis & Dalgas, 2009; Cogsdill, Todorov, Spelke, & Banaji, 2014). 즉, 얼굴을 통해 특성을 유추하는 능력과 경향성은 삶의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어린 나이의 아동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만을 바탕으로 그들의 성격 특성을 성인들과 비슷한 양상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유추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Antonakis & Dalgas, 2009; Cogsdill et al., 2014). 예를 들어, 3~4세 아동들은 낯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거나 나쁜 성격을 지녔는지에 대한 판단을 일관되게 하였으며, 아동들의 추론은 18~67세의 성인들(평균 나이 = 30.23세)이 동일 얼굴을 보고 판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Cogsdill et al., 2014). 즉, 어린 아동들에게 똑똑해 보이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얼굴은 대부분의 성인들에게도 유능해 보이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통해 상대방의 성격이나 내재적 속성을 유추하려는 경향성은 삶의 매우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근본적인 사회인지 능력이며, 사회적 경험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Todorov et al., 2015).

얼굴을 통한 추론이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관상학자들은 얼굴 외모를 통해 그 사람의 실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얼굴에 드러난 외형적 특징과 성향 간의 관계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반면, 심리학자들은 관상학적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상학에서 주장하는 바는 오늘날 일부 사람들에게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그러나 Lavater(1775)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관상학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얼굴이 주는 정보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즉, 관상학의 정확성과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낯선 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려 하며, 타인의 얼굴에 드러난 단서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관상학에 대한 믿음과는 별개로, 얼굴을 바탕으로 한 추론과 판단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얼굴을 통한 인상 평가는 실험실에서 벌어지는 가상의 전략적 게임부터 실제 행동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Antonakis & Delgas, 2009; Blair et al., 2004; Eberhardt et al., 2006; Little et al., 2007; Olivola et al., 2014; Rezsescu et al., 2012; Todorov et al., 2005; Zebrowitz & McDonald, 1991).

리더 선정

개인의 인상이 사회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영역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떤 얼굴의 지도자를 선택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련의 선행 연구들은 성공적인 리더들이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성격 특성들이 얼굴로부터 일관되게 유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Antonakis & Dalgas, 2013;

Ballem & Todorov, 2007; Chen, Jing, & Lee, 2014; Lenz & Lawson, 2011; Sussman, Petkova, & Todorov, 2013; Todorov et al., 2005). 예를 들어,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이 실제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경험적 결과들이 있다. Todorov와 동료들(2005)은 연구참가자들에게 낯선 두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서 동시에 제시된 두 사람은 과거 미국에서 진행된 선거(2000, 2002, 2004년 상원의원 선거와 2002, 2004년 하원의원 선거)에서 실제로 경쟁했던 두 후보자, 즉 당선인과 낙선인이었다. 연구참가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면 좌우에 나타난 낯선 사람들의 흑백 얼굴 사진을 보고 누가 더 유능해 보이는지 응답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에게 더 유능해 보인다고 선택된 사람이 실제 선거의 당선자일 확률이 낙선자일 확률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더 유능해 보인다고 평가 받은 후보자가 미국 상원의원 당선자일 확률은 71.6%였으며, 하원의원 당선자일 확률은 66.8%로 나타나 모두 통계적으로 우연 수준 이상이었다.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사진의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그 어떤 사전 지식도 갖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런 결과는 짧은 시간 내에 얼굴로부터 유추된 후보자의 속성이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Todorov et al. 2005).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결과는 다양한 국가(브라질, 불가리아, 덴마크,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핀란드)에서 수행된 연구들뿐만 아니라, 5~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반복 검증되었다(Antonakis &

Dalgas, 2009; Olivola & Todorov, 2010). 이에 더하여, 다수의 연구들은 후보자의 얼굴이 강인해 보이는 정도(Chen et al. 2014; Little et al. 2007), 사교적이거나, 불임성 있게 보이는 정도(Castelli, Carraro, Ghitti, & Pastore, 2009),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잘 부합하는 정도(Olivola, Sussman, Tsetsos, Kang, & Todorov, 2012),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전형적인 공화당원처럼 생겼는지(Olivola et al. 2012)의 여부가 선거 결과를 잘 예측함을 보여주고 있다.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지도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 영역 이외에서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더 유능하고 강인하게 생긴 사람들이 얼굴에 그런 특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쟁자들에 비해 더 좋고 잘 나가는 회사의 CEO로 고용되는 경우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실제 업무 성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Graham, Harvey, & Puri, 2017; Rule & Ambady, 2008). 또한, 군대에서도 인상이 미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얼굴이 강인해 보이는 정도가 향후 해당 간부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오르게 될 계급과 지위를 잘 예측하였다(Mazur, Mazur, & Keating, 1984; Mueller & Mazur, 1996). 이와 같이 사람들은 얼굴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특성과 성향을 유추해내며, 이러한 추론이 리더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 의사결정과 판단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은 경제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 투자를 하려

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얼굴로부터 유추되는 다양한 특성들 중 신뢰성에 대한 추론은 자원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제적 상호작용에서 특히 중요하다(Fukuyama, 1995; Rezlescu et al., 2012). 실제로, 사람들은 낯선 이의 얼굴로부터 신뢰성에 대한 판단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할 뿐만 아니라(Willis & Todorov, 2006), 얼굴에서 신뢰성을 유추하는 것에서 사람들 간 합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Oosterhof & Todorov, 2008). 따라서 사람들은 타인의 성향과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얼굴로부터 유추되는 신뢰성 수준을 바탕으로 경제적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이 있다(Schlicht, Shimojo, Camerer, Battaglia, & Nakayama, 2010; Stirrat & Perrett, 2010; van't Wout & Sanfey, 2008).

Rezlescu와 동료 연구자들(2012)은 얼굴에서 유추된 신뢰성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에게 컴퓨터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투자 게임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컴퓨터 화면 속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실험에 참여한 또 다른 참가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컴퓨터 화면에 등장한 얼굴은 실제 참가자의 얼굴이 아니라, 연구자가 사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신뢰성 수준을 높게 혹은 낮게 조작한 가상의 얼굴이었다. 실험 결과, 파트너에 대한 아무런 단서가 없을 때, 실험 참가자들은 신뢰할 수 없게 생긴 파트너에 비해 신뢰할 수 있게 생긴 파트너에게 42% 더 많이 투자하였다. 이런 결과는 실제 돈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여 금전적 이해관계가 참가자들에게 더 중요해졌을 때에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놀랍게도, 얼굴로부터 유추된 신뢰성 수준이 투자 행위

에 미치는 영향은 파트너의 과거 행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확인되었다. 즉,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전에 협력 혹은 배신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트너의 얼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향성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타났다(Ewing, Caulfield, Read, & Rhodes, 2015). 구체적으로, Ewing과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 5세와 10세의 아이들도 더 신뢰할 수 있게 생긴 얼굴의 파트너에게 자신이 가진 재화를 더 많이 투자하였다. 또한, 아이들은 게임 파트너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재화를 기꺼이 추가로 지불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별도의 정보가 없을 때, 상대방의 얼굴에 주목하여 자신이 가진 자원을 공유할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얼굴의 영향은 실험실 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실제 경제적 의사결정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Bertrand, Karlan, Mullainathan, Shafir, & Zinman, 2010; Duarte, Siegel, & Young, 2012). 예를 들어, Duarte와 동료들(2012)은 개인과 개인 간 대출을 중개해주는 미국의 온라인 사이트(Prosper)를 대상으로 얼굴의 영향이 대출 상황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2,000 ~ \$35,000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다. 다음으로, 여러 사람들은 대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각자 돈을 빌려줄지 말지 결정한다. 만약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아지면, 대출 신청자는 해당 금액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출 신청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신용 이력, 총부채상환비율, 소득 수준, 고용 유무)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향후 채무상환 능력을 예상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구 결과, 놀랍게도 대출 신청자에 관한 풍부한 정보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굴로부터 유추되는 특성이 경제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더 신뢰할 수 있게 생긴 신청자들에게 더 낮은 이자율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얼굴로부터 유추되는 특성이 사람들의 경제적 결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적 판단

얼굴에 바탕을 둔 추론은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에서조차 작용하고 있다. 다수의 연구들은 얼굴 생김새가 유무죄에 대한 판단, 처벌이 강력한 정도, 재판에서의 형량 결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일관되게 보여주었다. 중세 시대에는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두 명의 용의자가 동시에 의심받고 있을 때, 둘 중 더 못 생긴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Ellis, 1895). 얼굴이 재판 과정 및 결과에 미치는 이런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뢰할 수 없게 생긴 피고인과 특정 범죄에 대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Dumas & Testé, 2006; Macrae & Shepherd, 1989; Porter, ten Brinke, & Gustaw, 2010). 그리고 범죄자처럼 생긴 얼굴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더 강한

의심을 받으며, 이후에 재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lowe & Humphries, 2011). 또한, 놀랍게도 그 어느 누구보다 공정성, 객관성, 중립을 지켜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판사들조차 얼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Zebrowitz와 McDonald (1991)는 미국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벌어진 506개의 소액사건 재판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고소인과 피고인의 외모가 판사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재판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특히 상대편 원고가 애틀아 보이는 얼굴을 가지고 있을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Berry & Zebrowitz-McArthur, 1988; Zebrowitz & McDonald, 1991).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흑인들이 주로 가진 특징이 얼굴에 드러난 피고인(흑인처럼 생긴 피고인)들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뿐 아니라(Blair et al., 2004),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Eberhardt et al., 2006).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의 실제 인종적 배경을 통제한 이후에도 그대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실제 인종 정보가 아니라 얼굴 특성에 바탕을 둔 차별이 재판에서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단지 흑인과 비슷한 얼굴을 가지고, 흑인처럼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얼굴을 통한 추론 및 판단의 정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타인의 얼굴로부터 다양한 특성들을 자동적으로 유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얼굴을 통한 특성 추론

은 합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Willis & Todorov, 2006; Todorov et al., 2009).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얼굴을 기반으로 한 추론은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Dumas & Testé, 2006; Macrae & Shepherd, 1989; Porter et al., 2010; Todorov et al., 2015). 그러나 사람들이 특정 얼굴로부터 유추하는 내적 특성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며, 이렇게 유추된 특성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주요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반드시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Funder, 1987;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다시 말해, 특정 후보자의 얼굴 생김새가 다수의 유권자들에 의해 유능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이러한 추론이 실제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고 해서 당선된 후보자가 실제로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은 얼마나 정확할까? 만약 이런 추론과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면, 즉 타인의 얼굴을 통해 유추해낸 속성이 그 사람의 실제 성향과 모습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은 단지 처음 봤을 때 유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유능하지 않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더 나쁘고, 재판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얼굴을 바탕으로 내리는 판단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고대 시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대해 살펴보았다(Collins, 1999; Olivola & Todorov, 2010; Passini & Norman, 1966;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Zebrowitz, Andreoletti, Collins, Lee, & Blumenthal, 1998).

먼저,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의 얼굴이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한 진실의 일면(a kernel of truth)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여 얼굴 생김새가 그 사람의 내적 속성과 외적 행동에 대한 비교적 정확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enton-Voak, Pound, Little, & Perrett, 2006; Stirrat & Perrett, 2010; Valla, Ceci, & Williams, 2011).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 결과 사람들은 얼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정치 성향(Rule & Ambady, 2010; Samochowiec, Wanke, & Fiedler, 2010), 성적 지향성(Rule, Ambady, Adams, & Macrae, 2008; Rule, Ambady, & Hallett, 2009), 그리고 심지어 범죄 행위마저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Porter et al., 2008; Rule, Krendl, Ivcevic, & Ambady, 2013; Valla et al., 2011). 이런 결과들은 얼굴에 근거한 우리의 판단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반면, 20세기 초반의 심리학자들은 관상의 정확성에 대해 대체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얼굴 사진만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주장하였다(Burton & Jenkins, 2011; Olivola & Todorov, 2010; Rule et al., 2013; Todorov & Porter, 2014). 그리고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일부 경험적 증거들이 있지만, 해당 연구들은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의 타당성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얼굴로부터 유추한 내적 속성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Olivola, Funk, & Todorov, 2014;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이처럼,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우리가 얼굴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향, 능력, 그리고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부터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정확성에 대해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고,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격 특성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성별, 인종, 그리고 대략의 나이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내적 속성과 특징도 얼굴만으로 정확한 추론이 가능할까? 이전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단순히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되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Albright, Kenny, & Malloy, 1988; Borkenau & Liebler, 1992; Hassin & Trope, 2000; Little & Perrett, 2007; Passini & Norman, 1966; Penton-Voak et al., 2006). 예를 들어, Passini와 Norman(1966)의 연구에서는 아무런 언어적 의사소통 없이 단지 잠시 동안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 특성 일부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참여자가 자기 자신의 외향성과 개방성에 대해 평정한 값과 참여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자의 외향성과 개방성에 대해 평가한 값 사이의 상관계수가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지 않는 다수의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가자가 자기 자신의 성격에 대해 평가한 것과 타인이 연구참가자의 성격에 대해 평가한 것 사이의 상관계수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Berry & Brownlow, 1989; Penton-Voak et al., 2006), 일부 성격 차원(e.g., 성실성, 우호성)의 경우에는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Pound, Penton-Voak, & Brown, 2007).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얼굴을 통해 유추된 성격 특성이 그 사람의 실제 성향과 반대 방향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Hassin & Trope, 2000; Zebrowitz et al., 1998; Zebrowitz, Voinescu, & Collins, 1996).

성 지향성

개인의 얼굴은 그 사람의 성적 지향성에 관한 일부 정보를 담고 있으며, 타인들은 얼굴에 담긴 이러한 정보를 신뢰할만한 수준에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ule & Ambady, 2008; Rule et al., 2008; Rule et al., 2009). 예를 들어, Rule과 동료들(2009)은 사람들이 낯선 이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성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연 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데 그리 오랜 시간(40ms)이 걸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실험 참가자들에게 눈과 입 같은 얼굴의 일부 부위만을 보고 그 사람의 성 지향성에 대해 판단하도록 했을 때에도 그에 대한 정확도는 단순히 우연으로 맞춘 확률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Rule et al., 2008; Rule et al., 2009).

그러나 사람들이 얼굴에서 타인의 성 지향성을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본 다수의 연구들은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구

체적으로, 연구자들은 대부분 온라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온라인 사이트 사용자들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직접 선택하여 업로드하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자체적 특성과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목적이 프로필 사진 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령, 특정 사용자는 자신의 내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 프로필로 공개할 것이다. 따라서 얼굴 주인공의 의도가 사진에 그대로 반영되어 이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 업로드된 게시물들이 사용자의 실제 성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결과들이 있다(Kosinski, Stillwell, & Graepel, 2013; Vazire & Gosling, 2004).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실험 참가자들이 낯선 이의 얼굴 사진을 보고 그들의 성적 지향성에 대해 잘 예측한 것은 웹사이트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도를 잘 드러내는 사진을 직접 선택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Todorov et al., 2015).

정치 성향

사람들은 얼굴 단서만을 바탕으로 낯선 이의 정치 성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Carpinella & Johnson, 2013; Jahoda, 1954; Olivola et al., 2012; Olivola & Todorov, 2010; Rule & Ambady, 2010; Samochowiec et al., 2010). 예를 들어, Olivola와 동료들(2012)의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선거에 출마하여 서로 경쟁 중인 두 후보자 사진을 본 다음, 공화당(혹은 민주당) 소속의 후보자를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

험 참가자들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난 특징과 그로부터 유추되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야 했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비교적 정확하게 선거 후보자들의 소속 정당, 즉 정치적 성향을 예측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우리가 얼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고 고정관념 혹은 기저울 같은 정보에 집중했을 때, 오히려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구체적으로, 낯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정치 성향 혹은 성 지향성에 대해 예측할 때, 단순히 얼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나이 및 인종과 관련된 고정관념이나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전반적 비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면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 성향에 있어서 나이, 인종,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공화당 소속의 후보자는 민주당 소속의 경쟁 후보자에 비해 더 나이가 많은, 백인, 남자일 경우가 많다(Olivola et al., 2012). 따라서 실험 참가자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더 나이 들어 보이는 백인 남성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공화당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Olivola와 동료 연구자들(2012)은 이 점에 주목하여 후보자의 나이, 인종, 성별을 통제한 이후에도 얼굴을 바탕으로 정치 성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로 인종과 성별이 같고, 나이차가 25세 이하였던 후보자들이 경쟁했던 선거들로만 분석했을 경우 판단의 정확도는 우연 수준(50.7%)까지 떨어졌다. 이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의 얼굴 정보만으로 그들의 정치 성향을 정확히 예측했던 결

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정치 성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간의 관계(‘나이 든 백인 남성은 일반적으로 공화당 지지자이다’)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능력과 성취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그 사람의 실제 능력과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CEO의 얼굴이 회사의 실제 수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Rule과 Ambady(2008)는 얼굴 외모에 대한 정보만으로 리더의 실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이들은 미국 종합 경제지 Fortune에 실린 리스트를 바탕으로 상위 25개 그리고 하위 25개의 회사를 선정하고, 각 회사 CEO의 얼굴 사진과 회사의 재정 실적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각 CEO들의 사진을 보고 차례로 그들의 성격 특성에 대해 유추해 보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에게 더 유능하고, 강인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평가받은 CEO들의 회사가 실제로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더욱이, 이런 결과는 CEO들의 나이, 매력도, 정서 표현 정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CEO에 대한 인상 평가가 회사의 실적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얼굴 외모로부터 유추된 특성들이 리더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선호도뿐만 아니라 리더의 실제 성과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Rule과 Ambady(2008)의 연구는 실험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과관계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더 잘 나가는 회사일

수록 리더십과 관련된 긍정 특성들이 얼굴에 더 잘 드러나는 CEO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회사가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CEO로 고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Graham과 동료들(2017)은 후속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회사의 과거 수익을 통제했을 때 얼굴로부터 유추된 유능성과 회사 실적 간의 관계는 사라졌다. 이런 결과는 기존에 같은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에 고용되었을 경우, 매우 유능하게 생긴 CEO가 무능하게 생긴 CEO보다 실제로는 더 유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더 유능해 보이는 CEO에게 더 높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다(Graham et al. 2017; Rule & Ambady 2008). 이는 얼굴에 현혹되어 내린 판단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뢰성과 도덕성 판단

뉴스에서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관상은 과학이다. 딱 범죄자처럼 생겼다’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인지 혹은 신뢰할 수 없는 비윤리적인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고대 시대에 살던 인류들은 낯선 대상과 마주했을 때, 상대가 아군인가 적군인가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들은 자원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이로운 대상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자신을 속이고 해를 입힐 대상과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해야 했다. 이처럼 타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Dawkins & Krebs, 1979), 얼굴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은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정확하게 진화해왔을 가능성이 높다(Byrne & Corp, 2004; ten Brinke, Stimson, & Carney, 2014). 실제로, 일부 연구자들은 개인의 얼굴로부터 유추된 신뢰성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과 잘 관련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정확성을 주장하였다(Bond, Berry, Omar, 1994; Lin, Adolphs, & Alvarez, 2018). 즉, 신뢰할 수 있게 생겼다고 평가된 사람들이 실제로도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ond와 동료들(1994)은 얼굴을 통한 신뢰성 판단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총 133명의 참여자들에게 먼저 각자의 얼굴 사진을 찍게 한 다음, 추가적으로 8개의 실험 연구에 대한 참가 의사를 물어보았다. 이들 중 6개의 실험은 참여자들에게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실험에 참가한다고 동의한 참여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보상을 약속하거나 가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야 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22명의 참여자들이 이전 133명의 얼굴 사진을 보고 각 인물이 정직하게 보이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그 결과, 정직하지 않게 생겼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일수록 정직해 보이는 얼굴의 사람들에게 비해 속임수와 거짓말을 요구하는 실험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선행 연구들은 우리가 얼굴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타인의 범죄 성향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였다(Porter et al., 2008; Valla et al., 2011). 예를 들어, Valla와 동료들(2011)은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만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이 과거

에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얼굴 사진을 보고 범죄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일반 대학생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이런 결과는 범죄자 판단의 암묵적 단서로 이용될 수 있는 사진 자극의 인종, 나이, 머리 스타일, 매력도 등을 통제 한 이후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편, Porter와 동료 연구자들(2008)은 얼굴을 통한 도덕성 판단의 정확성에 대하여 검증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비교적 도덕적이고,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의 집단(노벨상 수상자들)과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의 집단(현상 수배범들)의 얼굴들을 비교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총 34명의 얼굴을 각각 100ms 혹은 30초 동안 보고 각 얼굴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추측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이들의 얼굴 사진을 보고 노벨상 수상자를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현상 수배범을 위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연 수준 이상(50%)에서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판단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능했는데, 30초의 여유를 가지고 내린 판단과 100ms만에 내린 판단의 정확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들은 단 시간 동안 타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실제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들만으로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내리는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먼저,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의 정확성에 대해 살펴본 일부 연구들에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Todorov와 Porter(2014)는 동

일 인물의 얼굴이라 할지라도 사진이 찍힌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Todorov & Porter, 2014). 이처럼, 사진을 찍을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가 얼굴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조건에서 찍힌 얼굴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자칫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Todorov et al., 2015). 이와 같은 비판은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 그대로 적용된다. 참가자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 사진만을 바탕으로 범죄자와 일반인(대학생, 노벨상 수상자)을 잘 구별하였다(Porter, et al., 2008; Valla et al., 2011). 그러나 Valla와 동료들(2011)은 교도소에서 찍은 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학교 캠퍼스에서 찍은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서로 비교하였고, Porter와 동료들(2008)의 연구에서는 현상 수배범 사진과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을 각각 비교하였다. 즉, 이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상황 조건에서 찍힌 얼굴 사진들을 비교하였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당시의 환경적 요인들이 의도치 않게 얼굴 사진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령,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우 기쁨과 환희, 만족감 등 그들의 정서가 사진 속 얼굴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수 있다. 또한, 교도소 내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상황에서 찍힌 사진에는 범죄자들의 정서 및 심리 상태가 반영되어 실험 참가자들이 사진을 보고 판단할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Todorov & Porter, 2014).

다음으로, 얼굴에 바탕을 둔 신뢰성 추론의 정확성에 대해 살펴본 이전 연구들은 반복 검증이 되지 않거나 유의한 결과가 있더라도 효과 크기(effect size)가 작았다. 예를 들어, 비록 얼굴로부터 유추된 정직함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

가 있었을지라도(Bond et al., 1994), 해당 결과의 효과 크기는 크지 않았으며($r = -.20$, $p < .025$), 무엇보다도 일부 연구들에서는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Zebrowitz et al., 1998; Zebrowitz et al., 1996). 그리고 얼굴에서 유추된 특성이 정치인들의 불법 행위를 유의하게 예측했던 반면(Lin et al., 2018), 회사 경영자들의 얼굴로부터 유추된 신뢰성은 그들의 비리 관련 범죄 기록을 예측하지 못하였다(Rule et al., 2013).

얼굴이 주는 정보의 효용성과 가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련의 연구자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 사진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내적 성향과 행동 경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Bond et al., 1994; Lin et al., 2018; Porter et al., 2008; Rule & Ambady, 2010; Samochowiec et al., 2010; Valla et al., 2011). 그러나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일부 경험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들은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의 타당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반복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이와 같은 결과들과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우리가 얼굴로부터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타인의 얼굴을 바탕으로 순식간에 내린 판단은 편향된 사고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Olivola et al., 2014; Todorov et al., 2015).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과제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얼굴을 통한 추론 및 판단의 정확성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동일한 사람의 다양한 사진들에 대한 평가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얼굴 사진은 특정 개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효과적인 도구로 여겨진다(Todorov & Porter, 2014).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단일 사진 이미지가 개인의 외모를 적절히 포착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얼굴 사진을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실제 얼굴을 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Todorov et al., 2015). 예를 들어,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에 대해 살펴본 이전 연구들은 실험 참여자들에게 여러 사람들의 얼굴 사진들을 제시한 후, 각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얼마나 잘 관련되는지 살펴보았다(Bond et al., 1994; Lin et al., 2018; Porter, et al., 2008; Valla et al., 2011). 연구자들은 또한 같은 사람의 서로 다른 얼굴 사진이 동일한 특성 추론과 관련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시 말해, 특정 얼굴 사진을 통해 매우 유능해 보인다고 평가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얼굴 사진을 통째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매우 유능해 보인다고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얼굴 지각과 인상 평가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은 전통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얼굴에 드러나는 개인들 간의 차이(between-person variability)를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맞춘 반면, 한 개인의 얼굴 내에서 존재하는 차이

(within-person variability)는 일종의 오류로 취급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Jenkins, White, Van Montfort, & Burton, 2011; Todorov et al., 2015; Todorov & Porter, 2014).

그렇다면, 단 하나의 얼굴 사진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온전히 담아낸다고 볼 수 있을까? Lichtenberg(1968)는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형상이 인간의 얼굴이라고 하였다. 이런 주장은 아마도 우리의 얼굴이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우리의 얼굴은 결코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수시로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며 매 순간마다 계속 변화하고 있다(Todorov & Porter, 2014).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사진만으로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Burton & Jenkins, 2011; Jenkins et al., 2011; 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 Porter, 2014). 예를 들어, Laird(1927)는 어떤 얼굴 사진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제로도 동일한 사람의 사진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었다(Todorov & Porter, 2014). 따라서 단 하나의 얼굴 사진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얼굴 사진만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정확하게 유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Jenkins et al., 2011). 일부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동일한 사람의 다양한 사진들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매우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Burton & Jenkins, 2011; Jenkins et al., 2011). 구체적으로, Jenkins와 동료들(2011)은 네덜란드 유명인들의 사진을 영국인 참가자들에게 보여주고,

각 사진에 대해 매력도를 평가하도록 지시하였다. 영국 참가자들은 사진의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연구 결과, 사진의 선택이 매력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참가자들의 매력도에 대한 평정은 매우 낮은 합치도를 보였다. 놀랍게도, 동일한 사람의 여러 사진에 대한 매력도 평정에 존재하는 개인 내 변산(within-person variability)의 크기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매력도 평정에 존재하는 개인들 간 변산(between-person variability)의 크기가 서로 비슷하였다. 즉,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진을 통해서든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은 반면, 다른 사진을 통해서든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받은 것이다(Jenkins et al., 2011). 이런 결과는 얼굴 사진이 그 사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기본 가정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얼굴 사진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한 그간의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에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얼굴의 가로 대 세로 비율과 반사회적 행동 경향성

진화 심리학자들은 신체적 특징과 행동 경향성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들은 얼굴 구조를 통해 특정 성향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얼굴의 가로 대 세로 비율(facial width-to-height ratio: fWHR)이 남성성과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안면 중앙부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을 의미하는 fWHR은 양쪽 광대뼈 사이 너비를 눈썹에서 윗입술까지의 거리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다. 물리적

위험 요인이 가득했던 과거 시대에 여성들이 선호하는 배우자는 자신과 아이를 다양한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강인한 남성이었을 것이다. 남성들에게 높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는 강한 근육과 넓은 얼굴, 즉 높은 fWHR과 관련이 있다(Folstad & Karter, 1992). 이처럼 높은 fWHR은 좋은 유전자와 강인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Stirrat, Stulp, & Pollet, 2012), 과거 시대의 여성들은 높은 fWHR을 지닌 남성에게 더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Folstad & Karter, 1992).

얼굴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이 의미하는 바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fWHR이 지배성, 남성성과 관련된다고 믿고 있다(Carre, McCormick, & Mondloch, 2009). 실제로,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얼굴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을 통해 남성의 반사회적 성향 및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높은 fWHR이 위험 행동(Geniole, Denson, Dixon, Carre, & McCormick, 2015), 속임수와 착취(Geniole, Keyes, Carre, & McCormick, 2014; Haselhuhn & Wong, 2012; Stirrat & Perrett, 2010), 공격성(Carre et al., 2009; Goetz, Shattuck, Miller, Campbell, Lozoya, Weisfeld, & Carre, 2013), 정신병(Anderl, Hahn, Schmidt, Moldenhauer, Norebaert, Clement, & Windmann, 2016)과 관련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남성들에게서 관찰되었다. 더욱이, 테스토스테론이 fWHR과 반사회적 성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rre & McCormick, 2008).

더불어, fWHR이 얼굴을 통한 특성 추론의 정확성과 관련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Lin et al., 2018). 선행 연구들은 얼굴에서 특성을 유추하는 과정에 fWHR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

혔다. 구체적으로, 얼굴 사진을 바탕으로 측정된 fWHR이 높은 남자일수록 더 위협적이고(Geniole et al., 2015),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Haselhuhn, Wong, & Ormiston, 2013; Stirrat & Perrett, 2010). 여기서 더 나아가, Lin과 동료들(2018)은 얼굴 사진의 가로 대 세로 비율을 조작하여 얼굴의 가로 너비가 넓어지는 것이 특성을 유추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참여자들은 사진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의 가로 너비가 더 넓어져 fWHR이 더 높아진 사진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더 부패해 보이고 비리를 잘 저지를 것이라고 평가하였다(Lin et al., 2018). 이런 결과는 오랜 기간 동안의 진화 과정을 거쳐 특정 성향을 보여주는 일부 신호 및 단서가 얼굴 외형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이것이 우리가 얼굴을 통해 정확한 추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은 fWHR이 반사회적 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이전 결과들에 의문을 제기하였다(Kosinski, 2017; Wang, Nair, Kouchaki, Zajac, & Zhao, 2019).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이전 결과들이 대부분 실험실에서 소규모의 참가자들로부터 자기보고형 응답을 통해 관찰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한계점에 주목하여 일련의 연구자들은 대규모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다(Kosinski, 2017; Wang et al., 2019). 먼저, Kosinski(2017)는 총 137,163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fWHR과 행동 경향성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fWHR은 자기보고형 응답을 통해 얻은 행동 경향성 지표들과 거의 대부분 통계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더욱이, 일부 유의했던 상관관계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

와는 다르게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fWHR이 남성성과 관련되며, fWHR과 반사회적 경향성 사이의 관계가 주로 남성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난다는 이전 논의들과 상반되는 것이다(Carre & McCormick, 2008; Haselhuhn & Wong, 2012).

더 나아가, 이전 연구들에서는 참가자들의 자기보고형 응답을 바탕으로 fWHR과 반사회적 행동 간 관계를 분석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반사회적 성향에 대해 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과 같은 반응 편향(response bias)이 작용하여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ang과 동료들(2019)은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신들의 후속 연구에서 참가자의 자기보고형 응답뿐만 아니라, 참가자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이 참가자의 행동에 대해 평가한 타인 평정 행동 경향성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fWHR은 참가자 자신과 타인이 평정한 반사회적 행동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Kosinski(2017)는 이전에 출판된 연구들에서 확인된 fWHR과 반사회적 경향성 사이의 관계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만 논문에 보고하는 출판 편향(publication bias) 혹은 파일 서랍 딜레마(file drawer problem)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였다(Nelson, Simmons, & Simonsohn, 2018). 이처럼, fWHR과 같은 얼굴의 외형이 개인의 행동을 예측한다는 일부 결과들이 소개된 반면, 최근의 후속 연구들은 대규모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더 정교화된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가능성에 반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 충족적 예언

비록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정확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과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을지라도, 일부 연구들은 얼굴로부터 유추된 신뢰성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들을 제시하였다(Bond et al., 1994; Lin et al., 2018). 즉, 타인에 의해 신뢰할 수 있게 생겼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은 실제로도 믿음직한 행동을 하였다. 이처럼 얼굴 정보만을 이용하여 내린 신뢰성 판단이 비교적 정확하다는 것은 흥미로운 뿐 아니라 매우 신기한 일이다. 그렇다면, 얼굴로부터 지각된 신뢰성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부 사람들의 생각처럼 신뢰성과 관련된 내적 속성이 얼굴에 드러나고, 주변 사람들은 특정 얼굴 생김새로부터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것일까?

일부 연구자들은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자기 충족적 예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Haselhuhn et al., 2013; Slepian & Ames, 2016). 자기 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에 따르면, 개인의 행동은 성격 같은 본질적인 내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대하는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Rosenthal, 199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은 어떤 이의 얼굴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여 상대방이 얼굴에 부합하는 성격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Haselhuhn et al., 2013; Slepian & Ames, 2016).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통해 내린 평가와 판단

을 바탕으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자기 충족 예언으로 작용하여 주변의 예상에 부합하는 행동은 더욱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Haselhuhn et al., 2013; Jussim, 1986; Slepian & Ames, 2016).

Slepian과 Ames(2016)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의 정확성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예상을 바탕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얼굴에 근거한 추론과 판단이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험 결과,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특성이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얼굴 사진을 통해 유추된 신뢰성 수준이 이후에 참여자가 실험 동안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횟수를 정확히 예측하였다. 더욱이, 이런 결과는 1) 주변 사람들이 평상시 실험 참가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상, 그리고 2) 다른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 예상에 맞춰 행동하려는 실험 참가자 자신의 의도에 의해 차례로 매개되었다. 다시 말해, 평상시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고 생각한 실험 참여자일수록 상대방에게 진실을 말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불신할 것이라고 생각한 실험 참여자일수록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생겼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주변의 타인들이 그 사람의 얼굴로부터 유추한 속성을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요컨대, 먼저 개인의 얼굴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인상과 기대는 다른 사람들이 얼굴의

주인공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얼굴의 주인공은 주변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상을 스스로 내면화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쪽으로 행동할 것이다. 이에 따라 얼굴을 통해 유추된 특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얼굴에 근거한 추론과 판단이 정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얼굴을 통한 추론의 정확성은 특정 얼굴 생김새가 개인의 실제 특성을 잘 반영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예상 및 기대와 같은 일종의 사회적 편향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Slepian & Ames, 2016; Todorov et al., 2010).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초정확성 (Meta-Accuracy)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얼굴 생김새는 일상의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onakis & Delgas, 2009; Blair et al., 2004; Eberhardt et al., 2006; Little et al., 2007; Olivola et al., 2014; Rezlescu et al., 2012; Todorov et al., 2005; Zebrowitz & McDonald, 1991). 만약,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보고 내리는 그 사람에 대한 추론과 판단이 정확하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얼굴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을지라도, 다수의 경험적 연구들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이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Olivola et al., 2014; Rule et al., 2013; Todorov et al.,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얼굴로부터 자동적으로 특성을 유추하고 있으며(Todorov et al., 2009; Willis &

Todorov, 2006), 때때로 얼굴이 주는 정보에 너무 현혹된 나머지 보다 중요한 단서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흔하다(Olivola et al., 2014; Todorov et al., 2015).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얼굴을 바탕으로 내리는 판단의 초정확성(meta-accuracy)이 낮은 점에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의 얼굴을 바탕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다(Ames, Kammrath, Suppes, & Bolger, 2010; Hassin & Trope, 2000; Olivola et al., 2014; Todorov et al., 2015). 다시 말해, 자신이 얼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Olivola와 동료들(2014)은 참가자들이 얼굴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리더들(CEO, 장군, 정치인, 스포츠 코치)을 잘 구별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수행 능력을 과소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연 수준 이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리더들을 잘 구별하였다. 보다 중요하게, 자신의 응답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와 실제 정확도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이런 경향성은 참가자 내 결과와 참가자 간 결과에서 모두 관찰되었다. 즉, 개인 참가자가 자신의 판단을 확신했던 시행과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지 못했던 시행의 정확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응답에 더 확신했던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참가자들에 비해 실제로는 더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였다. 이런 결과는 다수의 사람들이 얼굴이 주는 정보를 믿고 따라야 할 때와 그렇지 말아야 할 때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설령 얼굴이 주는 정보가 그 사람의 실제 성향 및 행동을 예

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뜻으로, 이는 얼굴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때도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얼굴이 주는 정보의 유용성 및 타당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서의 문화 차

그간의 비교 문화 연구들은 인지, 정서, 행동 등 여러 영역에서 문화 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Markus & Kitayama, 1991;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이를 바탕으로,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얼굴에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내적 특성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가령, 얼굴로부터 내재적 속성을 유추하는 양상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합의성이 높았다(Rule et al., 2010; Sussman et al., 2013; Walker, Jiang, Vetter, & Szczesny, 2011; Zebrowitz, Montepare, & Lee, 1993).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의 내적 특성에 대해 내린 판단은 미국인과 일본인(Rule et al., 2010), 미국인과 한국인(Na, Kim, Oh, Choi, & O'Toole, 2015), 그리고 유럽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한국인(Zebrowitz et al., 1993)들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특정 문화권에서 유능해 보이거나 신뢰감이 높다고 여겨지는 얼굴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유사하게 유능해 보이거나 신뢰감이 높게 보인다는 것

이다.¹⁾ 그러나 비록 이처럼 얼굴로부터 내적 속성을 유추하는 방식에서 문화 간 유사성이 확인되었을지라도, 얼굴에서 유추되는 다양한 속성들이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문화마다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Na et al., 2015).

문화권에 따라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예를 들어, 서구 사회에서는 성향을 중심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반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상황이나 관계 맥락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려 한다(Markus & Kitayama, 1991). 구체적으로, 북미 및 서구 유럽과 같이 독립적 자기개념(independent self-construal)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안정된 내적 성향이 사회 행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Markus & Kitayama, 1991). 이런 문화권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격, 신념, 태도와 같은 내적 속성이며, 개인의 행동은 이러한 내적 속성의 발현이라고 믿는다(Imada & Kitayama, 2010; Markus & Kitayama, 1991; Na & Kitayama, 2012). 이와 대조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개념(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 강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개인이 다양한 상황과 관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위가 내적 속성보다는 역할, 지위 및 책임과 같은 그 사람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Imada & Kitayama, 2010; Markus & Kitayama, 1991; Na & Kitayama, 2012).

문화권에 따른 타인 이해 방식의 이와 같은 차이는 얼굴에서 유추된 특성이 사회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되는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앞서 얼굴에서 유추된 유능성에 대한 판단이 실제 미국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연구를 살펴보았다(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et al., 2005). 즉, 사람들에게 더 유능해 보인다고 선택된 후보자가 실제 선거에서 당선자일 확률이 우연 수준보다 높았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진행된 연구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Antonakis & Dalgas, 2009; Olivola & Todorov, 2010). 그러나 이런 결과는 한국에서 일부 반복 검증되지 않았다(Na et al., 2015). 예를 들어, Na와 동료들(2015)은 서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던, 얼굴로부터 지각된 유능함이 실제 선거를 예측한다는 결과가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이 강한 일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미국과 한국 선거에 출마해 서로 경쟁했던 후보자들의 얼굴 사진을 보여준 다음, 두 사람 중 더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는 유능함이 미국 선거 결과를 예측한 반면 한국 선거 결과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즉, 미국과 한국 학생들에게 유능하다고 여겨진 얼굴이 미국 선거에서는 당선자

1) 얼굴에서 내적 속성을 유추함에 있어서 문화 간 유사성이 확인되었다는 결과가 얼굴을 지각하고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서 문화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들에서는 얼굴을 인식하는 것에서 문화차를 확인하였다(Malpass & Kravitz, 1969; Meissner & Brigham, 2001; Walker et al., 2011).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인종이거나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타인의 얼굴을 그렇지 않은 얼굴에 비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Malpass & Kravitz, 1969; Meissner & Brigham, 2001).

일 확률이 낙선자일 확률보다 높았던 반면, 한국 선거에서는 당선자일 확률과 낙선자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얼굴로부터 유추되는 유능함이 한국에서는 선거와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유능성처럼 개인의 능력과 관련된 속성이 아닌, 친화성처럼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속성을 유추하게 하면 어떨까? 동아시아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적 속성보다 사회적 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연구(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를 고려한다면, 상호의존성이 강조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속성보다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능력이 선거와 같은 사회적 판단을 더 잘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 나진경과 허진(2016)은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한국 참가자들로 하여금 함께 제시되는 두 명의 얼굴 중에 ‘똑똑해 보이는 사람(유능함)’과 ‘친구가 많아 보이는 사람(인간관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 쌍으로 제시된 두 명의 얼굴은 실제 선거에서 경쟁했던 두 명의 후보자였으며,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얼굴에서 유추된 사회적 관계는 선거 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지만 얼굴에서 유추된 유능함은 그렇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친구가 많아 보일 것 같은 얼굴의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후보자보다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우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서구 문화권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었던, 얼굴에 드러나는 유능함이 사회적 판단을 예측하는 현상이 일부 문화권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더 나아가,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 같은 상호의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얼굴에 드러나는 사회관계적 속성이 투표 행위와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판단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Chen, Jing, Lee, & Bai, 2016; Rule et al., 2010). 이런 시사점을 감안한다면,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은 비교 문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 논의 및 추후 연구 과제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는 말이 있다. 이는 겉표지만으로 책의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으로, 겉모습에 현혹되어 보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되는 상황을 경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교훈을 따라 대상의 외부 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겉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을까? 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관상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Hassin & Trope, 2000), 우리들 대부분은 얼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타인의 얼굴로부터 특성을 유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Todorov et al., 2009; Willis & Todorov, 2006), 얼굴을 통한 추론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Antonakis & Delgas, 2009; Blair et al., 2004; Duarte et al., 2012; Eberhardt et al., 2006; Graham et al., 2017; Little et al., 2007; Olivola et al., 2014; Rezlescu et al., 2012; Rule & Ambady, 2009; Todorov et al., 2005; Zebrowitz & McDonald, 1991). 일부 연구들은 얼굴로부터

유추한 내적 속성이 그 사람의 실제 모습과 관련된다는 결과들을 보여주었다(Bond et al., 1994; Lin et al., 2018; Porter et al., 2008; Rule & Ambady, 2010; Samochowiec et al., 2010; Valla et al., 2011). 반면,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이 결코 정확하지 않다는 결과들 또한 다수 확인 되었으며(Graham et al. 2017; Rule et al., 2013; Zebrowitz et al., 1998; Zebrowitz et al., 1996), 실제로는 얼굴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Olivola & Todorov, 2010; Todorov, 2017; Todorov et al., 2015).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얼굴을 통한 추론 및 판단과 관련하여 추후 연구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고정관념과 편견, 그리고 차별 행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별과 관련된 얼굴 특성이 유능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람들은 매력도와 관계없이 얼굴에서 유추되는 유능함을 여성보다는 남성과 더 강하게 연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Oh, Buck, & Todorov, 2019). 더불어, 미국에서는 개인의 실제 인종과 관계없이 흑인의 얼굴 특징을 가진 피고인들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들에 비하여 더 심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lair et al., 2004; Eberhardt et al., 2006). 이는 합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법정에서조차 특정 집단에 대한 암묵적 형태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얼굴 외모를 통해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은 성별과 인종에 대한 편견이 얼굴로부터 특성을 유추하는 과정에서조차 나타날 뿐 아니라, 얼굴을 통해 기존의 편견

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얼굴을 통한 추론이 기존 고정관념과 편견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더 위협적으로 생기거나 더 신뢰할 수 없게 생긴 사람들은 평상시 차별 및 편견과 같은 부정적 경험으로부터 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후에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경향성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얼굴 특성이 기존의 고정관념 및 편견과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영역에서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남녀 간 갈등과 이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의 심리적 기제를 규명하는 작업은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우리가 타인의 얼굴 정보만을 바탕으로 얼마나 다양한 추론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얼굴 단서만을 바탕으로 타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심지어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한 추론까지도 가능하다고 한다(Bjornsdottir & Rule, 2017; Zwebner, Sellier, Rosenfeld, Goldenberg, & Mayo, 2017). 먼저, Bjornsdottir와 Rule(2017)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얼굴 사진을 보고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우연 수준 이상으로 정확하게 분류하였다. 참가자들은 심지어 시간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얼굴의 반만 보고도 그 사람의 사회계층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였다. 더 나아가, Zwebner와 동료들(2017)은 특정 이름에 관한 고정관념이 얼굴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제안하

였다. 이 연구자들은 먼저 실험 참여자에게 낯선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 이들은 참여자에게 여러 이름들이 포함된 목록을 제시하고, 낯선 사람의 실제 이름이 무엇이라고 예상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낯선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실제 이름을 우연 수준 이상에서 정확하게 짚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우리의 얼굴이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형상이라는 주장(Lichtenberg, 1968)과 일맥상통한다. 앞으로 사람들이 얼굴로부터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며, 얼굴을 통해 전달되는 이러한 정보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셋째, 그 동안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얼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을 확인한 것에 비해 눈, 코, 입 등과 같은 얼굴 부위들의 상대적 영향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얼굴의 어떤 부위가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전 연구들은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눈 혹은 입)만을 통해서도 낯선 이의 실제 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들을 확인하였다(Bjornsdottir & Rule, 2017; Rule et al., 2008; Rule et al., 2009). 구체적으로, 연구참가자들은 단지 눈 부위만을 보고나서도 남성과 여성의 실제 성 지향성을 우연 수준 이상에서 정확히 구분하였다(Rule et al., 2008; Rule et al., 2009). 더 나아가, Bjornsdottir와 Rule(2017)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눈 혹은 입을 통해 낯선 사람의 실제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으나 눈보다는 입을 통한 판단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꾸미거나 감추기 어려운 얼굴의 일부 부위만을 통해서도 타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유심히 살펴보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얼굴 부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얼굴로부터 다양한 특성을 유추하는 과정에서 얼굴의 어느 부위가 더 큰 역할을 하며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들 역시 유용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그간의 비교 문화 연구들은 얼굴을 통한 특성 추론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문화 간 일치도가 확인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구 문화권에 서 발견된 결과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데에 집중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이 얼굴로부터 내적 특성을 유추하는 양상에서의 문화 간 유사성을 확인한 반면(Rule et al., 2010; Sussman et al., 2013; Walker et al., 2011; Zebrowitz et al., 1993), 일부 연구들은 얼굴로부터 유추된 특성이 투표 행위와 같은 사회적 의사결정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나진경, 허진, 2016; Na et al., 2015). 그러나 문화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얼굴의 특징이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특성일지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더 다양한 연구 주제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화권에 따라 타인의 얼굴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목하는 부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 표정을 해석하기 위해 주목하여

살펴보는 얼굴 부위가 문화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Jack, Caldara, & Schyns, 2012; Yuki, Maddux, & Masuda, 2007). 구체적으로,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타인의 정서를 파악할 때 입에 드러나는 단서에 더 주목하였다. 반면, 일본인들은 미국인들에 비해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눈에 드러나는 단서에 더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uki et al., 2007). 이러한 결과를 감안한다면, 동양과 서양 사람들은 얼굴로부터 성향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살펴보고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는 얼굴 부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주제를 탐색해보는 후속 연구들은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비교 문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후속 연구에서는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이 일상에서 남용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살펴 봐야 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얼굴 사진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모와 인상이 실제 인터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Madera & Hebl, 2012). 따라서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얼굴 외모가 중요한 의사결정과 판단에 미치는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선, 사람들에게 얼굴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관련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특정 맥락에서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았을 때 얼굴에 드러나

는 단서에 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nz & Lawson, 2011; Rezlescu et al., 2012). Lenz와 Lawson(2011)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아 정치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후보자의 얼굴과 같은 피상적인 정보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얼굴을 통한 추론과 판단은 의식 수준 밖에서 자동적 그리고 직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Todorov et al., 2009; Willis & Todorov, 2006), 이를 통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분명하다. 실제로 사람들은 타인의 실제 성향에 관한 추가 정보가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얼굴에 반응하며, 순식간에 결정된 인상의 영향은 상대방에 관한 객관적 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lair, Chapleau, & Judd, 2005; Rule, Bjornsdottir, Tskhay, & Ambady, 2016).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얼굴에 현혹되어 중요한 정보와 단서를 그냥 지나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Olivola & Todorov, 2010), 그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얼굴로부터 타인의 성향을 유추하고 얼굴에서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편향된 사고와 왜곡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Olivola et al., 2014; Todorov et al., 2015). 따라서 얼굴에 드러나는 정보가 의사결정과 판단에 미치는 편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얼굴 지각 및 인상 형성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나진경, 허진 (2016). 얼굴에서 유추할 수 있

- 는 유능함과 사회적 관계가 한국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4), 37-49.
- Albright, L., Kenny, D. A., & Malloy, T. E. (1988). Consensus in personality judgments at zero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3), 387-395.
- Ames, D., Kammrath, L., Suppes, A., & Bolger, N. (2010). Not so fast: The (not-quite-complete) dissociation between accuracy and confidence in thin-slice impress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6(2), 264-277.
- Anderl, C., Hahn, T., Schmidt, A. K., Moldenhauer, H., Notebaert, K., Clement, C. C., & Windmann, S. (2016). Facial width-to-height ratio predicts psychopathic traits in 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8, 99-101.
- Antonakis, J., & Dalgas, O. (2009). Predicting elections: Child's play! *Science*, 323(5918), 1183.
- Aristotle. (1936). Physiognomics. In T. E. Page, E. Capps, W. H. D. Rouse, A. Post, & E. H. Warmington (Eds.), *Minor Works* (1955th ed.).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Ballew, C. C., & Todorov, A. (2007). Predicting political elections from rapid and unreflective face judgment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4(46), 17948-17953.
- Berry, D. S., & Brownlow, S. (1989). Were the physiognomists right? Personality correlates of facial babyish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2), 266-279.
- Berry, D. S., & Zebrowitz-McArthur, L. A. (1988). What's in a face? Facial maturity and the attribution of legal responsibility.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1), 23-33.
- Bertrand, M., Karlan, D., Mullainathan, S., Shafir, E., & Zinman, J. (2010). What's advertising content worth? Evidence from a consumer credit marketing field experi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5(1), 263-306.
- Bjornsdottir, R. T., & Rule, N. O. (2017). The visibility of social class from facial cu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4), 530-546.
- Blair, I. V., Chapleau, K. M., & Judd, C. M. (2005). The use of Afrocentric features as cues for judgment in the presence of diagnostic inform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1), 59-68.
- Blair, I. V., Judd, C. M., & Chapleau, K. M. (2004). The influence of Afrocentric facial features in criminal sentencing. *Psychological Science*, 15(10), 674-679.
- Bond, C., Berry, D., & Omar, A. (1994). The kernel of truth in judgments of deceptivenes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5(4), 523-534.
- Borkenau, P., & Liebler, A. (1992). Trait inferences: Sources of validity at zero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4), 645-657.
- Burton, A. M., & Jenkins, R. (2011). Unfamiliar face perception. In A. Calder, J. V. Haxby, M. Johnson, & G. Rhodes (Eds.), *Handbook of face perception* (pp. 287-306).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yrne, R. W., & Corp, N. (2004). Neocortex size predicts deception rate in primate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71(1549), 1693-1699.
- Carpinella, C. M., & Johnson, K. L. (2013). Appearance-based politics: Sex-typed facial cues communicate political party affili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1), 156-160.
- Carre, J. M., & McCormick, C. M. (2008). In your face: Facial metrics predict aggressive behaviour in the laboratory and in varsity and professional hockey player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275(1651), 2651-2656.
- Carre, J. M., McCormick, C. M., & Mondloch, C. J. (2009). Facial structure is a reliable cue of aggressive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0 (10), 1194-1198.
- Castelli, L., Carraro, L., Ghitti, C., & Pastore, M. (2009). The effects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bility on electoral outco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5), 1152-1155.
- Chen, F. F., Jing, Y., & Lee, J. M. (2014). The looks of a leader: Competent and trustworthy, but not domina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1, 27-33.
- Chen, F. F., Jing, Y., Lee, J. M., & Bai, L. (2016). Culture matters: The looks of a leader are not all the sam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6), 570-578.
- Cogsdill, E. J., Todorov, A., Spelke, E. S., & Banaji, M. R. (2014). Inferring character from faces: A developmental study. *Psychological Science*, 25(5), 1132-1139.
- Collins, A. F. (1999). The enduring appeal of physiognomy: Physical appearance as a sign of temperament, character, and intelligence. *History of Psychology*, 2(4), 251-276.
- Dawkins, R., & Krebs, J. R. (1979). Arms races between and within specie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05(1161), 489-511.
- Duarte, J., Siegel, S., & Young, L. (2012). Trust and credit: The role of appearance in peer-to-peer lending.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5(8), 2455-2484.
- Dumas, R., & Teste', B. (2006). The influence of criminal facial stereotypes on juridic judgments.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5(4), 237-244.
- Eberhardt, J. L., Davies, P. G., Purdie-Vaughns, V. J., & Johnson, S. L. (2006). Looking deathworthy: Perceived stereotypicality of black defendants predicts capital-sentencing outcomes. *Psychological Science*, 17(5), 383-386.
- Ellis, H. (1895). *The Criminal*. London: Walter Scott.
- Ewing, L., Caulfield, F., Read, A., & Rhodes, G. (2015). Perceived trustworthiness of faces drives trust behaviour in children. *Developmental Science*, 18(2), 327-334.
- Flowe, H. D., & Humphries, J. E. (2011). An examination of criminal face bias in a random sample of police lineup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5(2), 265-273.
- Folstad, I., & Karter, A. J. (1992). Parasites, bright males, and the immunocompetence handicap. *The American Naturalist*, 139(3), 603-622.

- Fukuyama, F. (1995).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Funder, D. C. (1987). Errors and mistakes: Evaluating the accuracy of social judgment. *Psychological Bulletin*, 101(1), 75-90.
- Geniole, S. N., Denson, T. F., Dixon, B. J., Carre, J. M., & McCormick, C. M. (2015). Evidence from meta-analyses of the facial width-to-height ratio as an evolved cue of threat. *PLoS ONE*, 10(7), e0132726.
- Geniole, S. N., Keyes, A. E., Carre, J. M., & McCormick, C. M. (2014). Fearless domina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ial width-to-height ratio and willingness to chea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7, 59-64.
- Goetz, S. M., Shattuck, K. S., Miller, R. M., Campbell, J. A., Lozoya, E., Weisfeld, G. E., & Carre, J. M. (2013). Social statu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cial structure and aggression. *Psychological Science*, 24(11), 2329-2334.
- Goren, C. C., Sarty, M., & Wu, P. Y. (1975). Visual following and pattern discrimination of face-like stimuli by newborn infants. *Pediatrics*, 54(4), 544-549.
- Graham, J. R., Harvey, C. R., & Puri, M. (2017). A corporate beauty contest. *Management Science*, 63(9), 3044-3056.
- Haselhuhn, M. P., & Wong, E. M. (2012). Bad to the bone: Facial structure predicts unethical behaviour.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B: Biological Sciences*, 279(1728), 571-576.
- Haselhuhn, M. P., Wong, E. M., & Ormiston, M. E. (2013). Self-fulfilling prophecies as a link between men's facial width-to-height ratio and behavior. *PLoS ONE*, 8(8), e72259.
- Hassin, R., & Trope, Y. (2000). Facing faces: Studies on the cognitive aspects of physiognom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5), 837-852.
- Heine, S. J., Lehman, D. R., Markus, H. R.,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Imada, T., & Kitayama, S. (2010). Social eyes and choice justification: Culture and dissonance revisited. *Social Cognition*, 28(5), 589-608.
- Jack, R. E., Caldara, R., & Schyns, P. G. (2012). Internal representations reveal cultural diversity in expectations of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41(1), 19-25.
- Jahoda, G. (1954). Political attitudes and judgments of other peopl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3), 330-334.
- Jenkins, R., White, D., Van Montfort, X., & Burton, A. M. (2011). Variability in photos of the same face. *Cognition*, 121(3), 313-323.
- Johnson, M. H., Dziurawiec, S., Ellis, H., & Morton, J. (1991). Newborns' preferential tracking of face-like stimuli and its subsequent decline. *Cognition*, 40(1-2), 1-19.
- Jussim, L. (1986). Self-fulfilling prophecies: A theoretical and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Review*, 93(4), 429-445.
- Kosinski, M. (2017). Facial width-to-height ratio does not predict self-reported behavioral tendencies. *Psychological Science*, 28(11), 1675-1682.

- Kosinski, M., Stillwell, D. J., & Graepel, T. (2013). Private traits and attributes are predictable from digital records of human behavior.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0(15), 5802-5805.
- Laird, D. A. (1927). *The Psychology of Selecting Men*. New York: McGraw-Hill.
- Lavater, J. C. (1775). *Essays on Physiognomy: Designed to promote the knowledge and the love of mankind*. London: William Tegg and Co.
- Lenz, G. S., & Lawson, C. (2011). Looking the part: Television leads less informed citizens to vote based on candidates' appearan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5(3), 574-589.
- Lichtenberg, G. C. (1968). *Schriften und Briefe*. Munich: Carl Hanser Verlag.
- Lin, C., Adolphs, R., & Alvarez, R. M. (2018). Inferring whether officials are corruptible from looking at their faces. *Psychological Science*, 29(11), 1807-1823.
- Little, A. C., Burriss, R. P., Jones, B. C., & Roberts, S. C. (2007). Facial appearance affects voting decision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28(1), 18-27.
- Little, A., & Perrett, D. (2007). Using composite images to assess accuracy in personality attribution to face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8(1), 111-126.
- Macrae, C. N., & Shepherd, J. (1989). Do criminal stereotypes mediate juridic judgment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2), 189-191.
- Madera, J. M., & Hebl, M. R. (2012). Discrimination against facially stigmatized applicants in interviews: An eye-tracking and face-to-face investig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7(2), 317-330.
- Malpass, R. S., & Kravitz, J. (1969). Recognition for faces of own and other ra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4), 330-334.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azur, A., Mazur, J., & Keating, C. (1984). Military rank attainment of a West Point class: Effects of cadets' physical featur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1), 125-150.
- Meissner, C. A., & Brigham, J. C. (2001). Thirty years of investigating the own-race bias in memory for face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7(1), 3-35.
- Mueller, U., & Mazur, A. (1996). Facial dominance of West Point cadets as a predictor of later military rank. *Social Forces*, 74(3), 823-850.
- Na, J., Kim, S., Oh, H., Choi, I., & O'Toole, A. (2015). Competence judgments based on facial appearance are better predictors of American elections than of Korean elections. *Psychological Science*, 26(7), 1107-1113.
- Na, J., & Kitayama, S. (2012). Will people work hard on a task they choose? Social-eyes priming in different cultural contex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1), 284-290.
- Nelson, L. D., Simmons, J., & Simonsohn, U. (2018). Psychology's renaissa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9, 511-534.
- Nisbett, R. E.,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 Review*, 108(2), 291-310.
- Oh, D., Buck, E. A., & Todorov, A. (2019). Revealing hidden gender biases in competence impressions of faces, *Psychological Science*, 30(1), 65-79.
- Olivola, C. Y., Eubanks, D. L., & Lovelace, J. B. (2014). The many (distinctive) faces of leadership: Inferring leadership domain from facial appearance. *The Leadership Quarterly*, 25(5), 817-834.
- Olivola, C. Y., Funk, F., & Todorov, A. (2014). Social attributions from faces bias human choice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8(11), 566-570.
- Olivola, C. Y., Sussman, A. B., Tsetsos, K., Kang, O. E., & Todorov, A. (2012). Republicans prefer Republican-looking leaders: Political facial stereotypes predict candidate electoral success among right-leaning voter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3(5), 605-613.
- Olivola, C., Y., & Todorov, A. (2010). Fooled by first impressions? Reexamining the diagnostic value of appearance-based inferenc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2), 315-324.
- Oosterhof, N. N., & Todorov, A. (2008). The functional basis of face evalu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5(32), 11087-11092.
- Passini, F. T., & Norman, W. T. (1966). A universal concep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44-49.
- Penton-Voak, I. S., Pound, N., Little, A. C., & Perrett, D. I. (2006). Personality judgments from natural and composite facial images: More evidence for a “kernel of truth” in social perception. *Social Cognition*, 24(5), 607-640.
- Porter, S., England, L., Juodis, M., ten Brinke, L., & Wilson, K. (2008). Is the face the window to the soul?: Investigation of the accuracy of intuitive judgments of the trustworthiness of human fac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40(3), 171-177.
- Porter, S., ten Brinke, L., & Gustaw, C. (2010). Dangerous decisions: The impact of first impressions of trustworthiness on the evaluation of legal evidence and defendant culpability. *Psychology, Crime & Law*, 16(6), 477-491.
- Pound, N., Penton-Voak, I. S., & Brown, W. M. (2007). Facial symmetr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extraver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6), 1572-1582.
- Rezlescu, C., Duchaine, B., Olivola, C. Y., & Chater, N. (2012). Unfakeable facial configurations affect strategic choices in trust games with or without information about past behavior. *PLoS ONE*, 7(3), e34293.
- Rosenthal, R. (1994). Interpersonal expectancy effects: A 30-year perspectiv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3(6), 176-179.
- Rule, N. O., & Ambady, N. (2008). The face of success inferences from chief executive officers' appearance predict company profits. *Psychological Science*, 19(2), 109-111.
- Rule, N. O., & Ambady, N. (2010). Democrats and Republicans can be differentiated from their faces. *PLoS ONE*, 5(1), e8733.

- Rule, N. O., Ambady, N., Adams, R. B., Jr., & Macrae, C. N. (2008). Accuracy and awareness in the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male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5), 1019-1028.
- Rule, N. O., Ambady, N., Adams, R. B., Jr., Ozono, H., Nakashima, S., Yoshikawa, S., & Watabe, M. (2010). Polling the face: Prediction and consensus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1-15.
- Rule, N., O., Ambady, N., & Hallett, K., C. (2009). Female sexual orientation is perceived accurately, rapidly, and automatically from the face and its featur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6), 1245-1251.
- Rule, N. O., Bjornsdottir, R. T., Tskhay, K. O., & Ambady, N. (2016). Subtle perceptions of male sexual orientation influence occupational opportunit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1(12), 1687-1704.
- Rule, N. O., Krendl, A. C., Ivcevic, Z., & Ambady, N. (2013). Accuracy and consensus in judgments of trustworthiness from faces: Behavioral and neur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3), 409-426.
- Samochowiec, J., Wänke, M., & Fiedler, K. (2010). Political ideology at face valu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3), 206-213.
- Schliht, E. J., Shinsuke, S., Camerer, C. F., Battaglia, P., & Nakayama, K. (2010). Human wagering behavior depends on opponents' faces. *PLoS ONE*, 5(7), e11663.
- Sedikides, C., Gaertner, L., & Toguchi, Y. (2003). Pancultural self-enhanc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60-79.
- Slepian, M. L., & Ames, D. R. (2016). Internalized impressions: The link between apparent facial trustworthiness and deceptive behavior is mediated by targets' expectations of how they will be judged. *Psychological Science*, 27(2), 282-288.
- Stirrat, M., & Perrett, D. I. (2010). Valid facial cues to cooperation and trust: Male facial width and trustworthiness. *Psychological Science*, 21(3), 349-354.
- Stirrat, M., Stulp, G., & Pollet, T. V. (2012). Male facial width is associated with death by contact violence: narrow-faced males are more likely to die from contact violence.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3(5), 551-556.
- Sussman, A. B., Petkova, K., & Todorov, A. (2013). Competence ratings in US predict presidential election outcomes in Bulgaria.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4), 771-775.
- Suzuki, A., Tsukamoto, S., & Takahashi, Y. (2017). Faces tell everything in a just and biologically determined world: Lay theories behind face reading.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10(1), 62-72.
- ten Brinke, L., Stimson, D., & Carney, D. R. (2014). Some evidence for unconscious lie detection. *Psychological Science*, 25(5), 1098-1105.
- Todorov, A. (2017). *Face value: The irresistible influence of first impress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odorov, A., Mandisodza, A. N., Goren, A., & Hall, C. C. (2005). Inferences of competence from faces predict election outcomes. *Science*, 308(5728), 1623-1626.
- Todorov, A., Olivola, C. Y., Dotsch, R., & Mende-Siedlecki, P. (2015). Social attributions from faces: Determinants, consequences, accuracy, and functional significa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6, 519-545.
- Todorov, A., Pakrashi, M., & Oosterhof, N. N. (2009). Evaluating faces on trustworthiness after minimal time exposure. *Social Cognition*, 27(6), 813-833.
- Todorov, A., & Porter, J. M. (2014). Misleading first impressions: Different for different facial images of the same person. *Psychological Science*, 25(7), 1404-1417.
- Valla, J. M., Ceci, S. J., & Williams, W. M. (2011). The accuracy of inferences about criminality based on facial appearance. *Journal of Social, Evolutionary, and Cultural Psychology*, 5(1), 66-91.
- van't Wout, M., & Sanfey, A. G. (2008). Friend or foe: The effect of implicit trustworthiness judgments in social decision making. *Cognition*, 108(3), 796-803.
- Vazire, S., & Gosling, S. D. (2004). e-Perceptions: Personality impressions based on personal websi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1), 123-132.
- Walker, M., Jiang, F., Vetter, T., & Sczesny, S. (2011). Universal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forming personality trait judgments from faces.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6), 609-617.
- Wang, D., Nair, K., Kouchaki, M., Zajac, E. J., & Zhao, X. (2019). A case of evolutionary mismatch? Why facial width-to-height ratio may not predict behavioral tendencies. *Psychological Science*, 30(7), 1074-1081.
- Willis, J., & Todorov, A. (2006). First impressions: Making up your mind after a 100-ms exposure to a face. *Psychological Science*, 17(7), 592-598.
- Yuki, M., Maddux, W. W., & Masuda, T. (2007). Are the windows to the soul the same in the East and West? Cultural differences in using the eyes and mouth as cues to recognize emo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2), 303-311.
- Zebrowitz, L. A. (1999). *Reading Faces: Window to the soul?* Boulder, CO: Westview.
- Zebrowitz, L. A., Andreoletti, C., Collins, M. A., Lee, S. Y., Blumenthal, J. (1998). Bright, bad, babyfaced boys: Appearance stereotypes do not always yield self-fulfilling prophec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5), 1300-1320.
- Zebrowitz, L., & McDonald, S. (1991). The impact of litigants' baby-facedness and attractiveness on adjudications in small claims courts. *Law and Human Behavior*, 15(6), 603-623.
- Zebrowitz, L. A., Montepare, J. M., & Lee, H. K. (1993). They don't all look alike: Individual impressions of other racial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1), 85-101.
- Zebrowitz, L. A., Voinescu, L., & Collins, M. A. (1996). "Wide-eyed" and "crooked-faced": Determinants of perceived and real honesty

across the life s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58-1269.

Zwebner, Y., Sellier, A.-L., Rosenfeld, N., Goldenberg, J., & Mayo, R. (2017). We look like our names: The manifestation of name stereotypes in facial appear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2(4), 527-554.

1차원고접수 : 2019. 07. 31.

2차원고접수 : 2019. 12. 10.

최종게재결정 : 2020. 03. 21.

What Does the Face Tell Us in Social Interactions? A Review of Inferences and Judgments Based on Facial Appearance

Seungbeom Hong

Jinkyung Na

Sogang University

Despite the fact that we are told not to judge people by their appearances, when meeting someone for the first time, we automatically pay attention to their face. People's interest in faces and the popularity of physiognomy have continued to the present day since ancient Greece, and many still believe they can make relatively accurate inferences about social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others from facial appearances. In line with this strong interest, our face-based judgments have received extensive attention from researchers with diverse perspectives. However, they have received relatively little research attention in Korea. The goals of this article are to review the literature on face perception and impression formation and also,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we introduce previous research on the way people make inferences from faces and the real world consequences of such inferences based on faces. Next, we review research on the accuracy of face-based inferences and further discuss when and how facial information leads observers to make wrong decisions and judgments. Finall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Face Perception, Impression Formation, Culture, Social Cognition